

미 증시, 강달러 악영향 여파로 실적 시즌 앞두고 하락 지속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유입돼 상승하기도 했지만, 유럽 경기 침체 이슈와 MS(-4.10%)의 하락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특히 장 후반 강달러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된 기술주의 낙폭이 확대되는 등 실적에 주목하며 하락 마감(다우 -0.62%, 나스닥 -0.95%, S&P500 -0.92%, 러셀2000 -0.22%)

특이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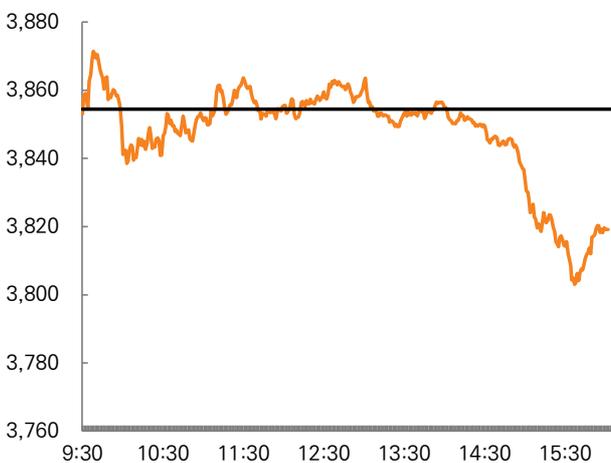
• 애플(+0.68%)은 아마존(-2.26%) 프라임데이에서 아이폰을 비롯한 자사 제품 매출이 할인 정책에 힘입어 급증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마이크론(+2.37%)은 히로시마 DRAM 공장 정전 발생에 따른 영향에 주목하며 상승. GM(+2.14%), 포드(+2.39%)등 자동차 업종과 카니발(+7.54%) 등 크루즈 업종은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다는 소식에 상승. 아메리칸 에어라인(+9.98%)은 가이드스 업데이트 이후 급등. 반면, MS(-4.10%)는 모건스탠리가 기업들의 IT 예산 감축으로 향후 실적 둔화 우려가 높다며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자 하락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09%, MSCI 신흥 지수 ETF는 0.3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6.74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4% 상승. KOSPI는 강보합권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었음에도 장중에 건조한 흐름을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특히 마이크론(+2.37%)이 상승을 주도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18% 강세를 보인 점이 긍정적. 물론 장 후반 강달러의 영향으로 하락폭을 키웠던 점을 감안 시장은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시장은 50 bp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창용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폭과 횡수가 예상보다 매파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 후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에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S&P500 일종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명	Close	D-1(%)	지수명	Close	D-1(%)
KOSPI	2,317.76	-0.96	상해종합	3,281.47	-0.97
KOSDAQ	750.78	-2.12	홍콩항생	20,844.74	-1.32
DOW	30,981.33	-0.62	베트남	1,174.82	+1.69
NASDAQ	11,264.73	-0.95	유로스톡스 50	3,487.05	+0.44
S&P 500	3,818.79	-0.92	영국	7,209.86	+0.18
캐나다	18,673.99	-0.76	독일	12,905.48	+0.57
일본	26,336.66	-1.77	프랑스	6,044.20	+0.8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유로/달러 패리티 ② 업종 차별화 ③ 원자재 급락

러시아가 유지 보수를 이유로 노드스트림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유럽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며 유로화가 약세를 보임. 유로는 달러 대비 1:1 즉 패리티를 기록. 지난 2002년 IT 버블 이후 첫 패리티라는 점에서 시장은 주목. 한편, 최근 스위스 프랑과 유로화는 이미 패리티를 넘어선 가운데 달러화에 대해서도 패리티를 기록한 것인데 이는 결국 유로존 경기 침체를 반영하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전일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여전히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유럽 경기 침체까지 이어진 데 따른 결과. 그렇지만, 과거 2002년 당시에도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우려하는 변동성 확대는 유입되지 않음. 오히려 이러한 유로화 약세가 유럽 기업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기업들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

MS(-4.10%)에 대해 모건스탠리가 비중 확대는 유지 했으나 목표주가를 372달러에서 354달러로 하향 조정. 모건스탠리는 거시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기업들의 IT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MS 실적 둔화 가능성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전망. 비록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비해 매크로 환경에서 자유롭기는 하지만 실적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여타 소프트웨어 업종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더불어 서비스나우(-12.74%) CEO가 기술주들이 강달러로 인한 역풍에 노출돼 있으며 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낙폭이 커짐

다만 여행, 레저, 항공, 금융, 자동차, 반도체 업종 등은 상대적으로 강세. 최근 하락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도달했다는 기대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데다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가 더해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특히 대손 총당금 증가로 실적 부진 우려가 높은 금융주 특히 JP모건에 대해 씨티그룹이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관련 업종에 우호적인 영향

국제유가는 상하이에서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자 봉쇄 우려가 높아진 여파로 급락. 여기에 OPEC 원유시장 보고서에서 2023년 원유 수요 증가가 하루 270만 배럴에 그쳐 올해 340만 배럴 증가에 비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점도 급락 요인. 더불어 EIA가 단기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WTI 평균 가격을 이전 수치에서 3.6% 하향 조정한 점도 영향

한편, 농산물도 급락했는데 미 농무부가 옥수수 공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수요 전망은 하향 조정하자 급락. 미 농무부가 주요 작황지에 비가 내려 재배가 지연되었으나 봄에 예상했던 파종 면적이 상향 되었다고 발표한 점도 급락 요인

대체로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높여왔던 국제유가와 농산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 기대를 높임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반도체, 금융, 항공 강세 Vs. 소프트웨어 업종 부진

애플(+0.68%)은 아마존(-2.26%) 프라임데이에서 아이폰을 비롯한 자사 제품 매출이 할인 정책에 힘입어 급증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이러한 소식에 애플 부품주인 스카이웍(+1.14%), 퀴보(+1.24%), 쉘컴(+0.55%)도 동반 상승. 아마존은 프라임 데이 매출 둔화 우려로 하락. 마이크로론(+2.37%)은 히로시마 DRAM 공장 정전 발생에 따른 영향에 주목하며 상승. GM(+2.14%), 포드(+2.39%), 스텔란티스(+0.66%) 등 자동차 업종은 최근 기업가치 대비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상승. 더불어 자동차용 반도체 칩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JP모건(+0.10%)은 씨티그룹이 실적 기대감을 반영하며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강세. 카니발(+7.54%) 등 크루즈 업종은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에 힘입어 상승. 아메리칸 에어라인(+9.98%)은 가이던스 업데이트 이후 급등했으며 델타항공(+6.15%), 사우스웨스트항공(+4.64%) 등 항공주도 실적 기대 속 강세. 보잉(+7.42%)은 2분기 항공기 인도 호조 소식에 실적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급등. 반면, MS(-4.10%)는 모건스탠리가 기업들의 IT 예산 감축으로 향후 실적 둔화 우려가 높다며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자 하락. 세일즈포스(-4.61%), 인튜이트(-4.15%), 서비스나우(-12.74%) 등 여타 소프트웨어 업종도 동반 하락. 특히 서비스나우는 CEO가 강달러로 인한 실적 위축 가능성을 언급하자 낙폭 확대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37	대형 가치주 ETF (IVE)	-0.43
에너지섹터 ETF (OIH)	-3.59	중형 가치주 ETF (IWS)	-0.22
소매업체 ETF (XLY)	-0.60	소형 가치주 ETF (IWN)	+0.19
온라인소매 ETF (EBIZ)	0.00	대형 성장주 ETF (VUG)	-1.31
금융섹터 ETF (XLF)	-0.63	중형 성장주 ETF (IWP)	-1.29
기술섹터 ETF (XLK)	-1.37	소형 성장주 ETF (IWO)	-0.71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15	배당주 ETF (DVY)	-0.30
클라우드 ETF (CLOU)	-3.24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20
미국 리츠 ETF (VNQ)	-0.39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38
주택건설업체 ETF (XHB)	+0.71	미국 국채 ETF (IEF)	+0.23
바이오섹터 ETF (IBB)	-0.65	하이일드 ETF (JNK)	+0.37
헬스케어 ETF (XLV)	-1.27	물가연동채 ETF (TIP)	-0.04
곡물 ETF (DBA)	-2.77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14
반도체 ETF (SMH)	-0.04	모멘텀 ETF (MTUM)	-0.99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소재	457.16	-0.21	+0.05	-10.56
필수소비재	753.79	-0.31	-0.35	+1.24
산업재	736.16	-0.32	+0.33	-3.83
통신	190.08	-0.48	-1.14	-1.09
유틸리티	355.25	-0.51	+0.71	-1.37
부동산	256.53	-0.59	-1.05	-0.22
금융	525.77	-0.65	-0.48	-2.39
경기소비재	1,109.08	-0.73	-1.33	-1.65
헬스케어	1,500.82	-1.33	-0.18	+2.86
IT	2,261.05	-1.34	+0.22	-1.11
에너지	525.18	-2.03	-1.26	-21.7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금통위 기자회견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09%, MSCI 신흥 지수 ETF는 0.3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06.74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4% 상승. KOSPI는 강보합권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특히 러시아의 대 유럽 천연가스 공급 중단 및 감축에 따른 유로존 경기 침체 이슈가 이어진 가운데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이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한 것으로 추정. 이런 가운데 백악관의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 우려 언급과 중국 코로나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달러화의 강세로 달러/원 환율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이 여파로 외국인 수급도 부담. 이로 인해 KOSPI는 0.96%, KOSDAQ은 2.12% 하락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었음에도 장중에 건조한 흐름을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특히 기업들의 IT 예산 감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종의 약세는 부담이나 마이크론(+2.37%)이 상승을 주도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18% 강세를 보인 점은 투자심리에 우호적. 물론 장 후반 강달러의 영향으로 하락폭을 키웠던 점을 감안 시장은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 부담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시장은 50 bp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물가안정과 글로벌 각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이를 예상케 하고 있어 관련 결과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다만 이창용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폭과 횟수가 예상보다 매파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 후 한국은행 금통위에서의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과 그에 따른 달러/원 환율, 외국인 수급 등에 주목하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독일 경제지표 위축

미국 6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지난달 발표(93.1)나 예상(92.9)을 하회한 89.5에 그쳐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독일 7월 ZEW 경기 기대지수가 지난달 발표(-28.0)나 예상(-41.0)을 하회한 -53.8을 기록. 현재 경제 상황지수도 지난달 발표(-27.6)나 예상(-34.0) 보다 위축된 -45.8을 기록. 중국 코로나 봉쇄 및 러시아 에너지 공급 중단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



국제유가, 농산물 급락

국제유가는 상하이에서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자 봉쇄 우려가 높아진 여파로 급락. 여기에 OPEC 원유시장 보고서에서 2023년 원유 수요 증가가 하루 270만 배럴에 그쳐 올해 340만 배럴 증가에 비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점도 급락 요인. 이런 가운데 EIA가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WTI 평균 가격을 이전 수치에서 3.6% 하향 조정한 점도 영향

달러화는 최근 강세에 대한 되돌림이 유입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장 마감을 앞두고 재차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임.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보인 가운데 캐나다 달러는 약세, 호주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등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최근 변화에 따른 수급을 소화하는 경향

국제금리는 경제지표 부진과 국제유가, 농산물 급락 여파로 하락. 더 나아가 강달러 여파로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하락 요인. 다만, 10년물 국제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인 2.50배를 하회한 2.34배, 간접 입찰도 69.4%를 하회한 61.3%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감소하자 낙폭이 축소

금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자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 곡물은 미 농무부가 옥수수 공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수요 전망은 하향 조정하자 급락. 특히 미 농무부는 주요 작황지에 비가 내려 재배가 지연되었으나 봄에 예상했던 파종 면적을 상향해 이 역시 급락 요인.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1%, 철근은 2.83%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95.84	-8.10	-3.86	Dollar Index	108.175	+0.14	+1.54
브렌트유	99.49	-7.45	-3.55	EUR/USD	1.0034	-0.06	-2.26
천연가스	6.16	-2.82	+13.07	USD/JPY	136.84	-0.44	+0.73
금	1,724.80	-0.47	-2.29	GBP/USD	1.1886	-0.05	-0.51
은	18.96	-1.42	-1.36	USD/CHF	0.9822	-0.10	+1.41
알루미늄	2,360.00	-0.82	-1.34	AUD/USD	0.6757	+0.34	-0.66
전기동	7,354.00	-3.04	-4.12	USD/CAD	1.3021	+0.11	-0.09
아연	3,016.00	-0.85	+0.80	USD/RUB	61.7528	-1.15	-2.58
옥수수	586.50	-6.76	+1.38	USD/BRL	5.4391	+1.13	+0.95
밀	814.25	-5.25	+0.56	USD/CNH	6.7380	+0.18	+0.39
대두	1,343.00	-4.57	+1.88	USD/KRW	1,312.10	+0.63	+0.91
커피	205.35	-3.70	-7.10	USD/KRW NDF1M	1,306.74	-0.30	-0.1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978	-1.48	+17.26	스페인	2.227	-10.80	-5.90
한국	3.335	-5.00	-3.00	포르투갈	2.235	-10.10	-5.10
일본	0.242	-0.30	+1.90	그리스	3.477	-13.00	+7.30
독일	1.132	-11.40	-4.70	이탈리아	2.968	-9.80	-4.1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